

損害保險社の 大型化・専門化 戰略에 관한 小考

李 鳳 周

(慶熙大學校 貿易學科 教授・經營學博士)

目 次

- I. 序 論
- II. 金融環境變化와 損害保險社の 對應方向
 - 1. 金融環境變化
 - 2. 損害保險社の 對應方向
- III. 規模의 經濟性
 - 1. 損害保險產業의 市場構造와 生産性
 - 2. 損保社 規模의 經濟性
- IV. 範圍의 經濟性
 - 1. 既存의 研究
 - 2. 推定模型 및 結果
- V. 結論 및 示唆點

I. 序 論

金融의 自律化, 證券化, 開放化, 國際化 趨勢下에서 타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保險産業도 급격한 環境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90년대들어 특히 1993년 이래 발생한 변화와 앞으로 예정된 변화는 넓고도 깊으며 또한 빨리 진행되고 있다.

輸出積荷保險種目에 대한 國境間交易(cross-border trade)의 우선적 허용, 航空保險의 再保險自由化 등追加的 市場開放이 이루어진 바 있고, 전반적으로 획일적이던 商品 및 料率이 自律化되고 있으며, 複數代理店 導入에서 보듯 판매채널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保險仲介人(broker)制度 導入 要求처럼 각종 자유화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쌍무적 차원의 市場開放要求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94년 6월 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個人年金을 損害保險社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 가운데 銀行, 投信社, 生保社와 경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保險産業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保險社の 戰略的 經營姿勢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金融産業의 競爭力을 제고시키고자 정부는 「新경제5개년계획」에서 金融改革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對外競爭力 強化를 위해 金融機關의 經營戰略으로 大型化와 専門化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金融機關의 業務領域規制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주지하듯 大型化나 專門化 戰略의 설정을 위해서는 規模의 適正性이나 業務領域擴大에 따른 費用節減效果에 대한 經濟的 分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規模의 經濟 및 範圍의 經濟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規模의 經濟가 명백히 존재할 경우 大型化戰略이 바람직하고 合併, 買受戰略이 구사될 수 있다. 한편 金融制度改編에 따른 業務領域의 擴大와 연관하여 結合生産에 의해 비용이 감소한다면 兼業化 戰略의 추구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가 他金融部門(은행이나 증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으나 보험부문 특히 損害保險產業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研究의 目的은 損害保險產業을 둘러싼 환경 분석과 規模의 經濟 및 範圍의 經濟에 대한 實證的 分析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경영전략수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損害保險產業에 대한 環境分析과 對應方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제III장 및 제IV장에서는 規模의 經濟에 대한 實證分析과 範圍의 經濟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보완성에 대한 분석이 각각 행해진다. 제V장에서는 結論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經營戰略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된다.

II. 金融環境變化와 損害保險社의 對應方向

1. 金融環境變化

가. 金融自律化의 進展

金融產業의 效率性 提高 및 對外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金融規制 緩和, 金利自由化, 業務領域自由化措置 등이 취해지고 있어 金融自律化 趨勢가 폭넓게 진전되고 있다. 주지하듯 신정부출범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됨에 따라 銀行·證券 및 保險 등 모든 金融分野에 대한 規制緩和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損害保險產業의 경우 화재보험폴의 解體, 代理店手數料協定の 自律化, 外國通貨表示 契約締結 基準 및 店鋪設置基準의 緩和, 商品認可節次的 簡素化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금융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금리의 가격기능회복 및 자금흐름의 개선을 주요배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金利自由化는 1991년 11월에 1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 1993년 11월부터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바 있다. 그리고 만기 1년이상 은행의 정기예금등 1,2금융권의 일부 수신금리와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政策資金 貸出金利가 自由化되는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全體與信의 약 95%, 受信의 약 67%가 자유화되었다.¹⁾

유사한 배경에서, 損保產業의 경우 은행권의 금리에 상응하는 保險商品價格인 保險料率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계획이 1993년 12월 수립되어 1994년 4월 부터 1단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保險史的 側面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損害保險料率 自由化 推進計劃의 기본골격은 확일적인 요율을 야기한 기존의 認可, 固定料率體制를 일단 範圍料率體制로 전환하여 2년동안의 제한적인 料率競爭

1)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

期間을 거친 후 自由料率體制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料率自由化는 損害保險部門을 크게 一般損害保險과 自動車損害保險으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自由化의 우선순위는 一般損害保險의 경우 家計性保險보다 企業性保險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自動車保險의 경우 料率算出構成要素別로 나누어 自由化되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1단계 조치로 船舶保險, 運送保險 등 19개 一般損害保險種目과 交通事故유무에 따른 自動車保險의 割引, 割増率에 範圍料率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自由化의 가속화를 위해 損害保險料率自由化 日程은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재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4월 모든 損害保險種目の 料率이 自由化될 예정이다.

保險付保對象의 성격상 再保險依存도가 높아 해외로부터 自由율을 求得하는 경우 전업 재보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 保險料率求得에 관한 協定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1998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大型企業物件 및 特殊物件의 自由율에 대한 국제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金利自由化 및 規制緩和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商品 및 業務同質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金融產業改編에 관한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新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新經濟 5個年計劃・金融改革部門」에 공표되었다(〈표 1〉 참조). 保險의 경우 업무영역측면에서 생·손보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서의 兼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個人年金制度의 도입과 함께 生命保險社와 損害保險社가 공히 취급기관으로 지정됨

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계획은 당초 예정한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 및 保險社의 國公債 窓口賣出을 올해부터 허용키로 한 바 있다. 특히 금융산업을 銀行, 保險, 證券의 3개부문으로 나누어 각부문간에는 分業主義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相互進出은 子會社를 통해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나. 開放化

1980년대 이후 國際協力體制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 경상수지 흑자 이후 金融產業에 대한 미국, EC 등의 개방압력 증대로 銀行, 證券, 保險部門 등에서 對外開放이 이루어졌다. 1987년의 생보시장개방,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변경, 1992년 자본시장 개방, CD발행한도 확대 및 ATM의 설치 허용, 원화의 단계별 국제화 허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市場接近側面에서 볼 때 손보산업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개방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우선 1992년에 1개 외국사 지점이 추가로 진출한 결과 1994년 3월말 현재 3개 외국사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1990년부터 국내사를 통한 義務再保險制度가 폐지되고 國內社 優先出再制度로 전환되었으나 이도 1998년까지 철폐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再保險分野의 市場開放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소비자가 原保險을 해외에 소재한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간교역(cross-border trade)을 輸出積荷保險에 대해 우선 허용(1993.1)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2)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1일.

〈표 1〉

業務領域調整 細部施行計劃(1993년)

금융기관	제1단계(93년)	제2단계(94~95년)	제3단계(96~97년)
은행	○ 은행에 대한 국공채 주간사 업무 허용	○ 거액RP개인매도 허용 ○ 은행신탁제도의 개선신탁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신탁상품의 장기화 유도	○ 국공채 창구 매출 허용 ○ 금리 및 환율과 연계된 선물 옵션 관련 상품개발 허용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 종금사에 대한 회사채 주간사 업무 허용	○ 투자금융회사의 CMA업무 단계적 축소 ○ 투자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제한적 허용 검토 ○ 종금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	○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통합 및 전문화 유도 - 국제금융업무, 단기금융업무, 기업금융서비스업무 등으로 특화 ○ 종금사의 증권투자신탁업무 폐지
투자신탁회사		○ 펀드자금운용규제 완화 및 해외투신업무 활성화	○ 신탁형 증권저축 및 이익보존제도 단계적 폐지 ○ 3개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후 투신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운용조직과 판매조직으로 이원화함
증권회사		○ 외국환업무 제한적 허용 ○ 대형화 전문화 유도 ○ 증권관련 선물옵션 연계상품 등 신상품 허용 ○ 증권사 BMF업무 단계적 축소	○ 투자신탁업무 간접진출 허용
보험회사		○ 자산운용에 있어 장기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여 대출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生・損保간의 제3분야(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대한 상호진출 허용	○ 국공채 창구매출 허용
리스회사		○ 전업리스사에 대한 해외차입허용검토 및 연불판매 허용	
지역금융기관			○ 상호신용금고의 상호합병을 통해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육성 ○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통합 및 대형화 추진 ○ 신탁, 새마을금고 등의 운영 감독 효율화방안 검토
채신예금	○ 채신예금에 대한 새로운 수신업무 취급억제	○ 채신예금의 효율성 재검토 ○ 운용자산의 재정투융자를 특별회계에 예탁하여 자금운용의 공공성을 제고함	

자료 : 재무부,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개혁부문, 93. 5. 22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하여 輸入積荷保險과 航空保險의 國境間交易이 1995년 4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³⁾

國內 保險販賣制度에도 변화가 이루어져 외국사의 시장침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既存販賣組織은 하나의 특정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專屬代理店, 募集人 및 直級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케팅 채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신설사가 단기간에 市場占有率을 높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2개사를 대리하는 복수대리점(dual agency)이 1993년 4월부터 우선 도입된 바 있고 여러 보험사를 대리할 수 있는 獨立代理店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외국사와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직 일정은 잡혀 있지 않으나 개방압력이 있는 브로커제도가 허용될 경우 企業性保險種目에 대한 시장잠식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국적 보상망이 없는 보험사(즉 외국사 지점)의 自動車保險 取扱이 허용된 바 있어 손해보험종목중 가장 비중이 높은 自動車保險에 대한 외국사의 영업신장이 중장기적으로 예상된다.

다. 國際化

保險社의 國際化는 生命保險과 損害保險産業의 경우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生命保險社의 경우 資本市場開放으로 資本自由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형생보사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전

략차원에서 海外投資限度の 擴大와 함께 海外進出이 점증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實物經濟規模의 擴大 및 世界經濟 불복과 강화에 따라 영업전략차원에서 海外進出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보사의 해외진출건수는 1980년대말 이후 급증하여 1994년 3월말 기준으로 6개 해외지점, 2개 현지법인, 5개 합작투자회사, 24개 주재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다. 아시아 및 미국지역은 支店形態로, 유럽지역은 現地法人形態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보사는 해외영업확대 목적으로 진출하여 주로 교포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營業規模는 작은 실정이다.⁴⁾ 한편 損保社의 資産規模가 생보사에 비해 매우 작은 관계로 생보사들보다 해외진출이 훨씬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損保社의 海外有價證券投資規模는 1993년 5월말 현재 약 240억원으로 보험사 총해외유가증권투자의 46.6%를 점유하였다.⁵⁾

한편 金融國際化 趨勢에 따라 금융규제의 정합성(harmonization)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BIS 기준의 危險增加資産對比 自己資本比率制度를 도입하게 되는 것처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지급여력(solvency margin) 제도의 도입 등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이는 1995년 시행예정인 保險業法 改正案에 포함되어 있다.

2. 損害保險社의 對應方向

가. 損保産業에 대한 影響

미국, EC, 일본 등의 예를 볼 때, 前述한 金融環

3)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

4) 한편 중국과의 교역증대로 '94년 11월 주재사무소 설치 내인가가 최초로 난 바 있다. (보험신보 1994년 11월 21일)

5) 보험조사월보 1993.8, p.36

境變化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構造的이고 長期的 現狀으로 판단된다. 즉 金利自由化 확대, 料率自由化의 추진, 規制緩和 확대, 金融産業改編의 진행, 保險市場 自由化 措置의 확대 등으로 손보산업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金融環境變化가 손보업계에 미친 영향은 同種 및 異種 金融機關間的 競爭 深化, 리스크의 增大·多樣化 및 업무의 複合化로 요약될 수 있다.

나. 對應方向

무엇보다도 長期經營戰略에 입각한 전략적 경영 추구가 요망된다. 즉 격화된 경쟁상황하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外形成長 追求戰略에서 자체의 경쟁력을 極大化하는 經營戰略設定(strategic repositioning)이 필요하다. 즉 산업내외적 환경변화를 위협과 기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종목, 상품, 고객 및 지역에 대한 새로운 戰略方向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조직구조, 기업문화, 전문인력확보 등)하는 것이 특히 강조된다.

이런 측면에서 Rogers(1993)에 의한 美國銀行의 事例研究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金利自由化, 汎世界化, 規制緩和, 情報通信技術의 發展 및 證券化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미국의 4개 대형은행이 어떻게 적응하였는가를 살펴보면 勝者와 敗者의 결정요인으로 戰略的 經營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성공사례로 Morgan과 Bankers Trust를 들고, 그 이유로 이들이 강점을

갖는 핵심사업에 대한 專門化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을 細分化하여 顧客의 滿足度를 제고한 점을 들고 있다. 반면 Chase는 대단히 경쟁적인 시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전방위전략을 추구한 것이 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Citicorp는 大型,兼業化(growth-through-diversification)戰略을 추구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戰略的 經營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strategic repositioning의 문제뿐 아니라 適正規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規模의 經濟가 존재할 경우, 즉 산출이 증가하면서 平均費用이 감소할 경우 大型化 戰略이 바람직하고, 合併·買受 전략이 구사될 수 있다.⁶⁾ 또한 適正規模가 존재한다면 특정종목(상품)에 生産要素를 집중시켜 比較優位를 확보하고 집중적인 정보수집 및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專門化 戰略의 추구가 급격한 환경변화하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金融制度改編에 따른 業務領域의 擴大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바 이런 측면에서 結合生産에 의해 비용이 감소한다면 兼業化 戰略의 추구가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각종 技術적 대응 기반구축이 요구된다. 經營合理化를 통한 生産性 提高, 保險數理 및 언더라이팅 부문의 레넬업, 資産運用의 效率性 提高 및 資産負債綜合管理(ALM) 體制構築, 經濟의 先進化 및 人口의 高齡化에 따라 多樣化하는 保險需要에 부응하기 위한 新商品開發 力量 強化, 損保産業의 收益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善(특히 자동차보험관련) 노력 경주 등이 이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規模 및 範圍의 經濟에 관한 經濟的

6) EC 통합에 따라 1989-1990년 동안 은행산업에서 239건, 보험산업에서 101건의 합병이 발생한 바 있다.

分析과 함께 損保社의 戰略設定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III. 規模의 經濟性

1. 損害保險産業의 市場構造와 生産性

가. 市場構造

損保社의 數는 1981년 15개사(재보험사포함)에

서 1994년 현재 17개사로 큰 변동이 없다.⁷⁾

市場集中度는 1983년부터 自動車保險의 獨占이 철폐됨에 따라 두드러지게 하락하였으나 '90년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수치를 1.0 (1사 완전독점)으로 하는 허핀달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보면 1982회계년도의 0.132에서 1992년의 0.0916으로 하락하였다. 複占(dupoly)인 保證保險과 再保險을 제외한 原受保險社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허핀달지수는 1982년의 0.1382에서 1992년의 0.1131로 하락하였다.

(표 2)

損害保險産業의 허핀달지수(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1982	1985	1987	1989	1990	1991	1992
허핀달지수 ¹⁾	0.1320	0.1053	0.0909	0.0890	0.0899	0.0909	0.0916
허핀달지수 ²⁾	0.1382	0.1154	0.1041	0.1070	0.1111	0.1122	0.1131

주 : 1. 모든 손해보험사 포함

2. 손해보험사중 보증보험사와 재보험사 제외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각년도

아래 표에서 보듯 외국과 누적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볼 때, 국내 손보산업의 시장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損保産業의 累積 市場占有率

(단위 : %)

	상위3사	상위5사	상위10사	상위15사	기타회사
독 일	18.3	24.6	36.7	46.6	53.4
영 국	37.5	54.9	72.5	78.8	21.2
프 랑 스	22.2	31.7	47.6	59.9	40.1
이 탈 리 아	22.7	32.9	48.0	56.4	43.6
일 본	40.9	54.8	—	—	—
한 국 ¹⁾	43.6	64.5	—	—	—
한 국 ²⁾	49.1	73.4	—	—	—

주 : 1) 전체 손보사(보증보험사, 재보험사 외국지점포함)의 원수보험료 기준(1992년).

2) 11개 손보사(보증보험사, 재보험사, 외국지점제외)의 원수보험료 기준(1992년).

3) 타국의 점유율 통계는 1987년 수치임(일본은 1991년 수치)

자료 : Prosperity(1991), 일본 Insurance 손해보험특별통계호, 보험감독원『보험통계연감』

7) 17개사는 14개 원수보험사, 2개 보증보험사, 1개 재보사를 말하며, 원수보험사는 11개 국내사와 3개 외국사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4년간(1988-1991 회계년도) 保有保險料의 加重平均을 이용한 最小거리법으로 11개 原受損害保險社를 대형사(4개사), 중형사(4개사), 소형사(3개사)로 나누었다.⁸⁾ 收入保險料 基準에 의한 大型社의 市場占有率은 '88년부터 '91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92년 들어 증가세를 보인 반면 小型社는 '88년의 16.3%에서 '92년의 11.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中型社의 市場占有率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會社規模別 收入保險料 占有率

(단위: %)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대형사	55.7	52.6	54.8	55.6	58.2
중형사	28.0	33.8	33.4	33.2	30.0
소형사	16.3	13.6	11.8	11.2	11.8

나. 生産性

1988년부터 1992년까지 11개 원수사에 대하여 대형 4개사, 중형 4개사 및 소형 3개사의 수입보험

〈표 5〉 原受社 規模別 相對的 比較 (평균치에 의거)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수입보험료	100	50.3	39.2	100	50.2	34.5	100	48.2	28.8	100	49.5	26.9	100	51.5	27.2
사업제경비	100	57.8	49.6	100	57.2	42.3	100	56.7	38.4	100	56.7	39.4	100	64.6	37.8
순사업비	100	56.0	48.1	100	54.0	39.1	100	54.9	38.4	100	48.9	34.6	100	56.7	33.5
점포수	100	71.2	64.1	100	72.9	55.3	100	76.3	56.3	100	61.4	54.8	100	77.8	51.9
대리점수	100	43.0	32.9	100	39.1	26.7	100	36.7	24.5	100	30.0	20.4	100	40.2	20.5
임직원수	100	66.4	58.0	100	67.0	53.0	100	69.7	53.2	100	72.9	52.4	100	74.0	52.3
모집인수	100	59.7	45.4	100	58.3	32.1	100	59.2	29.9	100	65.5	26.8	100	55.4	20.9

료, 사업제경비, 순사업비, 점포수, 대리점수, 임직원수 및 모집인수의 크기를 大型社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販賣組織別 生産性を 會社規模別로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대리점당 수입보험료를 보면 중형사가 대형사나 소형사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규모 및 범위의 계량모형 추정상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보험사중 보증보험회사, 재보험사 및 외국사 지점을 제외한 11개 원수손해보험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6〉

會社規模別 代理店當 收入保險料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대리점수		수입보험료		대리점당보험료	
	92년	91년	92년	91년	92년	91년
대 형 사	20,209	19,209	1,828,247	1,568,634	91	82
중 형 사	8,061	7,431	917,968	699,224	114	94
소 형 사	3,085	3,013	323,463	246,471	105	81

반면 募集人當 收入保險料는 소형사가 대형사나 중형사보다 많았다.

〈표 7〉

會社規模別 募集人當 收入保險料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모집인수		수입보험료		모집인당보험료	
	92년	91년	92년	91년	92년	91년
대 형 사	42,131	31,760	780,246	592,554	18	19
중 형 사	23,352	20,795	420,142	316,385	18	15
소 형 사	6,596	6,392	152,751	132,002	23	21

한편 任職員當(직급) 收入保險料는 대형사가 소형사나 중형사보다 많았다.

〈표 8〉 會社規模別 任職員當 收入保險料(1992)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수입보험료	임직원당보험료
대형사	8,662	494,263	57
중형사	6,414	253,986	40
소형사	3,434	147,662	43

2. 損保社 規模의 經濟性

가. 既存의 研究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는 生産量이 증가하면서 平均費用이 감소할 때 존재한다. 이는 규모에 비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존재할 때 성립하며, 最適會社規模(minimum efficiency scale)는 平均費用曲線이 최저수준에 도달할 때이다

損保産業의 規模의 經濟에 관한 外國의 研究를 보면 결과가 나라별로 상이하다. 研究方法論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반면 이태리와 영국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로 중형사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損保産業의 規模의 經濟에 관한 外國 研究

구 분	대상국	표본크기	결 과	MES수준
Allen(1974)	미 국	49개사 (주식회사)	소형사 : 존재 중대형사 : 不在 (수확불변)	보유보험료 4-6천만달러
Joskow(1973)	미 국	-	不在 (수확불변)	-
Lee(1989)	미 국	31개사	소형사 : 존재 중 대형사 : 不在 (수확불변)	보유보험료 1억달러
Halpern & Mathewson (1975)	캐 나 다	88개사	주식회사 : 不在 상호회사 : 존재	-
Doherty(1981)	캐 나 다	69개사	존재	-
Suret(1991)	캐 나 다	180개사	중형사 : 존재 (자산규모 4천만-1억 달러)	-
Prosperetti (1991)	이 태 리	151개사	존재	-
Praetz(1985)	영 국	60개사	존재	-

나. 推定模型

우리나라 損保市場의 規模의 經濟性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전통적 접근방법인 Cobb-Douglas형 費用函數를 사용하였다. 이는 費用의 生産彈力性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規模에 대한 收益이 모든 생산 수준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으며, 生産要素間의 代替彈力性도 고정되어 있다는 단순한 가정을 취한다는 것이 단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事業比率 模型을 함께 사용하였다.⁹⁾

Cobb-Douglas형 費用函數模型은 아래와 같이 費用과 保險料사이의 단순한 대수선형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모형 I)

$$\log C_i = \alpha + \beta \log DPW_i$$

여기서 C_i 는 손보사 i 의 純事業費이고 DPW_i 는 손보사 i 의 原受保險料이다. 保險社의 純事業費는 사업제경비에 대리점수수료등 기타 지급경비를 합한 값에서 收入經費를 차감한 것이다. 생산물의 측정을 위해 原受保險料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로그를 취하였기때문에 계수 β 의 推定値는 彈力性을 나타내며, 그 값이 1 보다 有意하게 작다면 規模의 經濟性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規模의 經濟性 研究에 있어서 生産物(output)의 측정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2 회계년도말 현재 대부분의 요율이 協定·單一料率이고 판매상품이 매우 동질적이며 나아가 營業種目的 比重(product mix)도 유사하므로 생산물의 대리변수로 保險料 規模를 사용하였다.¹⁰⁾

生産物의 測定과 관련하여 Doherty(1981)는 料率自由化가 이루어진 캐나다의 경우 會社規模와

9) Joskow(1973) 및 Cummins and VanDerhei (1979) 참조.

10) Allen(1974) 참조. 또한 영업종목비중을 감안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유의할 만한 결과의 변화가 없었다.

保險料 水準이 음의 相關關係를 갖는 점을 제시하면서 손보사 생산물의 측정이 保險料보다는 發生損害額(claims incurred)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험사에 의한 料率의 劃一性뿐만 아니라 發生損害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支給準備金の積立에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3회계년도부터 自動車保險의 準備金積立을 平均支給保險金方式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손보사가 거액의 準備金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¹¹⁾

〈모형 II〉

$$\log C_i = \sum_{i=1}^{11} D_i + \beta \log DPW_i$$

여기서 D_i 는 손보사 i 의 假變數(dummy variable)이다. 표본 손보사의 수효가 적어서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에 의해 신뢰성있는 관측치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의 결합(pooling)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11개 원수사의 1984회계년도부터 1992회계년도까지 9년간 통계를 이용하였다.¹²⁾ 保險社의 個別的 特性을 반영키위해 LSDV(least squares with dummy variable) 방식을 이용하였다.

事業費率 模型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모형 III〉

$$AC_i = \alpha + \beta_1 \log DPW_i + \beta_2 (NPW_i / DPW_i)$$

여기서 NPW_i 는 손보사 i 의 保有保險料이고, AC_i 는 손보사 i 의 純事業費를 保有保險料로 나눈 事業費率이다

변수 DPW 의 계수가 陰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規模의 經濟性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변수(NPW/DPW)는 再保險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Cobb-Douglas형 費用函數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본 모형과 비교하여 LSDV 방식에 의한 추정이 또한 이루어졌다(〈모형 IV〉).

다. 推定結果

아래 表는 1984사업년도부터 1992사업년도까지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Cobb-Douglas방식에 의한 모형 I의 결과를 보면 $\log DPW$ 의 계수가 1보다 작아 規模의 經濟를 시사하고 있다. 1점정에 의하면 5%수준(단측검정)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형 II의 경우에는 그 계수가 1보다 작지 않아 規模에 대한 經濟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事業費率 模型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모형 III과 IV 모두 $\log DPW$ 의 추정계수가 陰의 값을 갖고,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規模의 經濟를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가 제시하는 바가 상충되고 있기에

11) 지급준비금의 적립패턴에 대해서는 拙稿(1991) 참조

12) 표본기간을 1984 사업년도부터 시작한 이유는 1983년에 자동차보험시장이 다원화되어 모든 원수사가 동일한 영업환경을 갖게 된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임

〈표 10〉

規模의 經濟 模型의 推定結果

	모형 I	형 II	모형 III	모형 IV
D1		-2.3728 (-13.944)		0.4242 (10.379)
⋮		⋮		⋮
D11		-2.3755 (-13.235)		0.3896 (9.727)
α	-1.1585 (-5.073)		0.5568 (15.055)	
log DPW	0.9632 (50.592)	1.0578 (76.592)	-0.0324 (-8.693)	-0.0131 (-2.229)
NPW/DPW			0.0948 (2.583)	-0.0097 (-0.168)
Adj. R^2	0.963	0.999	0.456	0.994

주: ()의 수치는 t값임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F테스트에 의하면 保險社는 독특한 특성에 의해 절편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형 II와 IV의 결과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손보산업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한다는 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잠정적이거나 규모의 경제가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큰 표본과 방법론상 진보된 일반적인 (generalized) 計量模型에 의거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規模의 經濟가 會社規模에 따라 어떻게 차등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규모별

로 나눈 후 모형 I을 추정한 결과가 아래의 表이다. 여기서는 종속변수로 純事業費 이외에 事業諸費用을 추가로 사용하였다.¹³⁾

推定結果를 보면 大型社 및 小型社에게서는 從屬變數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規模의 經濟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中型社에서는 純事業費가 종속변수일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으나 사업제경비를 사용할 때 5%수준에서 規模의 經濟의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標本全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규모별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손보산업에서 規模의 經濟는 어느 정도 존재하나 규모의 경제성은 中型社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

13) 순사업비는 사업제경비, 대리점수수료, 공동보험수수료, 지급손해조사비, 수제보험수수료, 수제이익수수료를 합한 값에서 수입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사업제경비의 구성항목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신계약비, 장기수급비 및 기타 경비이다. 사업제경비는 순사업비의 약 82%를 점유한다.

(표 11)

模型 I 의 規模別 推定結果

	표본전체		대형사		중소형사		중형사		소형사	
	순사업비	사업 재비용	순사업비	사업 재비용	순사업비	사업 재비용	순사업비	사업 재비용	순사업비	사업 재비용
α	-1.1585 (-5.073)	-0.6798 (-2.891)	-3.203 (-11.482)	-1.9447 (-4.903)	-1.2896 (-5.249)	-1.1821 (-4.371)	-1.2886 (-4.151)	-1.0603 (-3.156)	-1.7863 (-4.423)	-2.2449 (-6.596)
$\log DPW$	0.9633 (50.592)	0.9156 (46.7)	1.1179 (50.2)	1.0087 (31.86)	0.9799 (46.541)	0.9636 (41.608)	0.9776 (37.219)	0.9497 (33.407)	1.0264 (29.19)	1.0613 (35.814)
$Adj R^2$	0.963	0.957	0.986	0.967	0.972	0.965	0.975	0.97	0.97	0.98

IV. 範圍의 經濟性

損保産業의 範圍의 經濟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 그리 많지 않다.

1. 既存의 研究

하나의 기업이 다품목생산물(multiproduct)을 동시에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의해 이들 生産物을 각각 분리하여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보다 작을 때 範圍의 經濟가 존재한다고 본다. 즉 두개의 생산물 X, Y를 생산한다고 하고 C를 費用函數라고 하면, $C(X,Y) < C(X,0) + C(0,Y)$ 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이들 생산물간에는 範圍의 經濟가 존재한다.

範圍의 經濟 效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費用 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의 概念이 사용된다. 費用補完性은 한 품목의 生産量增加가 다른 품목의 限界費用을 감소시킬 때 존재하며 이는 효율적인 品目構成을 위한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¹⁴⁾ 또한 費用의 補完性은 範圍의 經濟 성립을 위한 充分條件이다.¹⁵⁾

(표 12) 損保産業의 範圍의 經濟에 관한 外國 研究

구분	대상국	표본크기	결 과
Lee (1989)	미국	31개사	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HO)간에 존재
Suret (1991)	캐나다	180개사	- 不在 - 재산보험과 자동차보험과는 오히려 비경제 존재 - 단일종목 영위사에서 특화의 경제 발견

2. 推定模型 및 結果

Cobb-Douglas형 費用函數가 範圍의 經濟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때문에, 대안으로 초월대수형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가 많이 사용되는데, 一般形態는 다음과 같다.

$$\ln C = \alpha_0 + \sum_{i=1}^n \alpha_i \ln Y_i + \sum_{j=1}^m \beta_j \ln P_j$$

14) 이준행외 (1994)

15) Suret(1991), 최광외(1993)

$$+ 1/2 \sum_i^n \sum_k^n \sigma_{ik} \ln Y_i \ln Y_k$$

$$+ 1/2 \sum_j^m \sum_j^m \gamma_{jk} \ln P_j \ln P_k + \sum_i^n \sum_j^m \delta_{ij} \ln Y_i \quad (1)$$

여기서 C 는 生産費用, Y_i 는 i 생산물의 生産量, P_j 는 j 生産要素 價格이다. 식(1)이 費用函數가 되기 위해서는 요소가격에 대한 1차 동차성(linear homogeneity)과 대칭성(symmetry)의 制約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¹⁶⁾ 生産要素의 價格 P_j (자본비용, 임금수준등)는 실제로 손보사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데이터 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¹⁷⁾ 이에 따라 費用補完性を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ln C = \alpha_0 + \sum_{i=1}^3 \alpha_i \ln Y_i + 1/2 \sum_{i=1}^3 \sum_{j=1}^3 \sigma_{ij} \ln Y_i \ln Y_j \quad (2)$$

여기서 C 는 純事業費(또는 사업제경비), Y_1 은 自動車保險 原受保險料, Y_2 는 長期保險 原受保險料, Y_3 는 其他 原受保險料이다. 1992년말 현재 손해보험 총원수보료중 自動車保險이 약 48%, 長期保險이 약 30%를 점유하였다. 기타로 분류한 Y_3 에는 火災, 海上 및 特種保險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부분 企業性保險이다.

σ_{ij} 의 추정치가 陰의 값을 지니면 i 종목과 j 종목 사이에 費用補完性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 비용의 보완성은 식 (1)을 Y_i 및 Y_j ($i \neq k$)에 대해 미분한 것을 척도로 사용하게 되며, α_i 의 σ_{ik}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Mur-

ray와 White(1983)에 의하면, $\alpha_i \alpha_k + \sigma_{ik} < 0$ 을 만족할 경우 보험종목 i 와 k 간에는 費用補完性이 존재한다. 식(2)를 1984년부터 1992년까지 11개 원수손해보험사의 자료를 合同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模型的 推定結果

구 분	순사업비	사업제경비
α_0	6.1847 (1.09)	-1.485 (-0.23)
α_1	-1.1124 * * (-2.14)	-0.1142 (-0.19)
α_2	1.1644 (1.70)	1.2889 * * * (1.66)
α_3	0.0432 (0.03)	0.2823 (0.16)
α_{11}	0.0928 (6.38)	0.0008 (0.05)
α_{22}	0.0117 (0.47)	0.0163 (0.57)
α_{33}	-0.0578 (-0.57)	-0.0369 (-0.32)
α_{12}	-0.124 * (-3.91)	-0.059 (-1.65)
α_{13}	0.073 (1.16)	0.1057 (1.49)
α_{23}	0.0316 (0.4)	-0.0604 (-0.68)
R^2	0.991	0.987

주: ()안의 수치는 t값임

* : 1% 수준에서 유의, * * : 5% 수준에서 유의, * * * : 10% 수준에서 유의

16)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준행외(1994) 참조

17) Lee(1989), 이영기외(1989), 최광외(1993)

推定結果를 보면 自動車保險과 長期保險種目간에는 비용의 相互補完性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σ_{12} 의 계수가 음수일 뿐만 아니라 $(\sigma_1\sigma_2 + \sigma_{12})$ 가 0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自動車保險과 其他保險種目, 그리고 長期保險과 其他保險사이에는 費用補完性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는 상품의 판매나 수집된 정보의 사용 및 인적자원의 활용에 있어 自動車保險業務와 長期保險業務간에는 상호보완성을 갖음을 시사한다. 이는 두 종목이 주로 家計性保險(personal line)이기 때문에 顧客層이 重複性을 갖으며 또한 공히 代理店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2회계년도말 현재 自動車保險 原受保險料의 약 63%와 長期保險의 약 60%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

한편 式(1)로부터 規模의 經濟性 條件이 유도될 수 있다. 만약 아래의 식 (3)에서 $\eta < 1$ 이면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eta = \sum_{i=1}^3 \alpha_i + \sum_{j=1}^3 \sigma_j \ln Y_j + \sum_{i,j}^3 \sigma_{ij} (\ln Y_i + \ln Y_j) \quad (3)$$

기존 연구방식을 따라 $\ln Y_i (i=1, \dots, 3)$ 의 평균과 式 (2)의 추정 계수의 값을 式 (3)에 대입하면, 純事業費를 종속변수로 할 경우 $\eta=0.622$ 이고, 事業諸經費의 경우 $\eta=0.374$ 이다.¹⁸⁾ 두 경우 모두 1보다 작기 때문에 規模의 經濟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추정계수치가 有意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Ⅲ장의 결론처럼 어느 정도의 規模의 經濟性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V. 結論 및 示唆點

構造的, 長期的 特性을 지닌 최근 金融環境의 變化는 손보업계에 同種 및 異種 金融機關간의 競爭의 深化, 리스크의 增大·多樣化 및 業務의 複合化라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生存·成長을 위한 戰略的 經營追求 그리고 단기적 측면에서는 生産性 提高, 經營合理化의 지속적 추진이 요망된다.

19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 이후 損害保險 市場의 集中度는 두드러지게 하락하였으나 大型社의 市場占有率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市場集中度가 높다. 특히 小型社의 市場占有率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販賣組織의 生産性을 규모별로 단순비교해 볼 때 大型社는 直級部門에서, 中型社는 代理店部門에서, 그리고 小型社는 募集人部門에서 比較優位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형사가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直級을 통해 대형물건이 부보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가 직급부문에서 우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損保市場의 規模의 經濟性을 11개 원수보험사의 9년간(84.4-92.3)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여 보았다.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지만 일단 規模의 經濟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볼 때, 中型社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大型社나 小型社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의 상품 및 종목하에 外形成長爲主의 전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된다. 規模의 擴大가 어느

18) 이 영기와 (1989)

정도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1993년 9월부터 보험사들도 합병과 業種轉換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시의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

範圍의 經濟를 살펴보기 위해 費用의 補完性에 대한 실증분석이 또한 이루어졌다. 推定結果에 의하면 自動車保險과 長期保險간에는 費用補完性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산업개편 계획상 傷害·疾病·看病保險部門에서 生·損保間 兼營하기로 한 것이나 個人年金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損保社의 效率性提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連繫性 商品開發擴大 및 長期損害保險 商品開發에 대한 제약조건의 완화가 요망된다.

自律化, 開放化 및 國際化 趨勢下에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經營環境變化와 그에 따른 競爭의 激化, 그리고 規模의 經濟가 어느 정도 존재하나 自動車保險과 長期保險간에만 費用補完性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戰略設定(strategic repositionin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小型社는 합병이나 資本金増資 등을 통해 營業規模의 擴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종목에 대한 營業을 止揚하고 專門化를 추구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分岐點에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논의는 規模와 範圍의 擴大에 따른 費用의 效率性에 한정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주지하듯 保險營業의 特性을 고려할 때 費用側面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더라이팅(保險引受)측면이다. 自動車保險 多元化以後 언더라이팅에 대한 고려없이 경쟁적으로 自動車保險營業을 확장한 결과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脆弱한 財務構造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소

재 외국기업체의 賠償責任保險 등 企業性保險 위주로 영업해 온 外國社 支店은 1%미만의 市場占有率을 보이지만 양호한 收益性을 시현하고 있다. 예컨대 2개 外國社 支店の 3개년('89-'91) 평균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이 3.79%인 반면 11개 원수손보사는 2.54%였다. 料率自由化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 명백하며, 이러한 사항이 經營戰略의 設定에 있어 중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이영기·최범수·남상구·어운대·윤계섭·최운렬·금정연,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0.
- Lee, C.G.(1989),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for Direct Writers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산업경영연구』, 197-204
- 이준행·강종만·김정국,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효율성 분석』, 한국증권 경제연구원, 1994
- 이봉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적립패턴과 효율자율화", 『보험개발연구』, 제 2권 제 1호, 1991, 84-98
- 최광·김기홍·안종범·김성재·권영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 Allen, R., "Cross Sectional Estimators of Cost Economies in Stock Property-liability Compan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1974, 100-103
- Cummins, D. and J. VanDerhei, "A Note on the

-
- Relative Efficiency of Property-Liability Insurance Distribution Systems,"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1979, 709-719
- Doherty, N. A., "The Measurement of Output and Economies of Scale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8, 1981, 390-402
- Halpern, P.J. and G. F. Mathewson, "Economics of Scale in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 1975, 203-220
- Joskow, P.L., "Cartels,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4, 1973, 375-427
- Murray, J.D. and R. W. White, "Economics of Scale and Economics of Scope in Multi-product Financial Institutions : A Study of British Columbia Credit Unions," *Journal of Finance* 38, 887-901
- Praetz, P, "A Note on Economies of Scale in the United Kingdom :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5, 315-320
- Prosperetti, L., "Economies of Scale in Italian Non-Life Insurance",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1991, 282-292
- Rogers, D., *The Future of American Banking*, McGraw-Hill, 1993
- Sigma, Economies of Scale in the Insurance Industry, *Economic Studies*, 1991.4
- Suret, J. M.,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Canadia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ndustr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16, 1991, 236-256